

미국 정상들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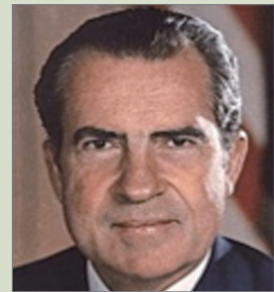
세계 어느나라 정상이나 지도자들도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윤정은 중앙정보부장을 비롯 민주공화당 의장, 국무총리 재직 등 40여년간에 걸쳐 현역 대통령 5명과 전직 대통령 2명, 현역 부통령 4명과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우리나라 대미 외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각 계 각 층에 걸쳐 높은 수준의 외교를 펼쳐왔다.



(33대, 1945-1953)
해리 트루만
(Harry Truman)



(36대, 1963-1969)
린든 존슨
(Lyndon Joh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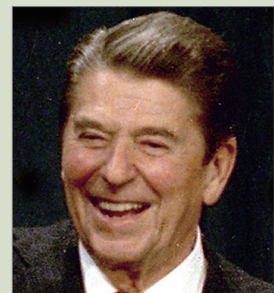
(37대, 1969-1974)
리차드 닉슨
(Richard Nixon)



(38대, 1974-1977)
제럴드 포드(Gerald Ford)



(39대, 1977-1981)
지미 카터(Jimmy Carter)



(40대, 1981-1989)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41대, 1989-1993)
조지 부시
(George H. W. Bush)



(42대, 1993-2001)
빌 클린턴(Bill Clinton)



(43대, 2001-2009)
조지 부시 2세
(George Walker Bush)



1964년 트루먼 기념관을 방문하여 트루먼 전대통령으로부터 6.25전쟁에 얽힌 비화와 함께 한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다. 가운데 트루먼과 김종필, 왼쪽은 김운용 참사관. 김 전 총리는 6·3사태와 관련 2차 외유 중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1973.1.3 고 트루먼 전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케네디공항에 도착하여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전총리 뒤에 김용식 외무장관.



1966.11.2 존슨 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다과연을 갖고 있다. 영부인 린다여사에게 과자를 권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존슨 대통령 왼쪽은 이효상 국회의장,



1966.10.31 존슨 미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있다.

1973.1.5 닉슨 대통령과 면담 후 윤정은 교포 만찬장에서, 닉슨 대통령이 “한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확인했고, 한국사태(유신 선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닉슨 대통령: “유신維新, 그게 대체 뭐니까?”

“1972년 말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서거逝去했고, 이듬해 초에 대한민국 총리로서 조문弔問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이 나더러 “유신維新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대체 뭐니까?”라고 묻더구먼.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트남 사태를 감안한 대통령께서 소위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고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켜서 남북 균형이 깨지자, 김일성은 내년에 환갑잔치를 서울에서 치르겠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70년대에 공업화를 이룩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근대화를 이룰 계획을 맹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모두들 배가 고파 말없이 지냈지만, 70년대 들어서자 갑자기 내 똥을 내놓으라고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필코 공업화와 수출입국輸出立國을 이룩해 자립해야 할 시점에 민주화나 자유니 하는 욕구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와 내외의 정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다간 국가가 꽃 피우지도 못하고 요절夭折할 지경이었으니까요.

1970년대에 어김없이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이루겠다고 결심한朴 대통령이 한시적인 비상관리체제로 선포한 것이 바로 유신維新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유신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가

할 것입니다. 유신을 선포한 배경에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도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닉슨 대통령은 시종일관始終一貫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닉슨 이름 새겨진 골프공 일화

그리고 헤어질 때 닉슨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골프공 두 박스를 기념품으로 줬어요. 그 기념품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각하께서 주신 기념품은 잘 간직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겐 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닉슨 대통령이 왜 그러냐고 묻더구먼.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공을 남들이 클럽으로 막 팸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울 브리너가 주연한 전쟁영화 중에 쌍둥이가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동생이 다치면 형도 아파합니다. 마찬가지로 닉슨이라 이름이 새겨진 공을 남들이 치면 혹시 몸이 아플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에겐 골프공을 절대 주지 마세요.’

그 후 골프공 선물을 그만 뒀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농담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닉슨’이란 이름이 새겨진 공을 드라이버로 이백 수십 야드를 날릴 텐데. 하하….

내 말을 듣고 있던 닉슨 대통령도 ‘내가 그걸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박장대소拍掌大笑를 했지.”

(2006. 5.9 이코노미스트)



1974.11.22 닉슨 대통령 중도 사퇴로 대통령직을 인수한 포드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있다. 포드 대통령은 방한을 통해 한국군 현대화, 주한미군 불감축, 한국 피공격시 즉각 지원 등의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1989.6.21 포드 전대통령 초청으로 제8차 월드포럼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연설에 앞서 기념촬영. JP 오른쪽으로 김용채 원내총무와 김용환 정책위의장. 사진 하단에 포드 대통령이 친필로 서명하여 보내왔다.



1971.6.29 박정희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로 내한하는 애그뉴 부통령을 공항에서 맞이하고 있다.



1975.4.16 대만 장개석 총통 장례식에 참석 후 록펠러 부통령과 면담 두 사람은 한미 간 공동 관심사와 월남사태를 비롯한 동남아전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지원 정책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5.16혁명과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박정희 정부의 대미외교는 국가안보, 경제상황과 직결돼 있었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 카터 인권정책 등으로 한·미관계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운정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존슨 대통령을 비롯하여 닉슨, 포드, 부시,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을 면담, 그 때마다 우리나라의 안보·정치·경제·외교 현안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냈다.



1989.2.27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회 의사당을 방문해 연설에 앞서 정당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김종필 총재와 김대중 총재.



1998.11.20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있다.



1998년 글로벌 리더스 다이알로그 컨퍼런스에서 부시 전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80.2.2 방한중인 로잘린 카터 여사(지미 카터 대통령 영부인)와 환담하고 있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미국 대통령, 부통령과의 주요 만남 일지

- 1962.10.26 중앙정보부장으로 국무성 초청 공식 방문 중 케네디 대통령 면담 일정이 쿠바사태로 취소되어,
대통령의 지시로 동생 로버트 법무장관을 만나다.
- 1962.11월초 미국 인디펜던시 소재 트루만박물관을 방문, 트루만 전대통령을 만나 6.25전쟁을 회고하며 환담을 나누다.
- 1966.1.1 민주공화당 당의장으로서 내한 중인 험프리 부통령과 경제 원조, 월남 파병에 관해 논의하다.
- 1966.10.31 민주공화당 당의장으로서 국민으로 내한한 존슨 대통령 부처를 공항에서 영접하다
- 1971.6.29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사절로 방한하는 애그뉴 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다
- 1971.10.1 이란 건국 2,500주년 기념식에 참석 후 현지에서 애그뉴 부통령과 만나다.
- 1973.1.3 트루만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다.
- 1973.1.5 트루만 장례식을 마친 후 닉슨 대통령과 만나 10월 유신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1974.11.22 공식 내한하는 포드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다.
- 1975.4.16 대만 고 장개석 총통 장례식에 참석 후 현지에서 록펠러 부통령을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하다.
- 1980.2.2 방한중인 카터 대통령 영부인 로잘린 여사와 환담하다.
- 1985.2.21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다.
- 1989.2.27 조지 부시 대통령을 국회에서 접견하다. 이어 1998, 1999년 대통령 퇴임 후 두차례 방한하였을 때에도 만나다.
- 1989.6월 미국 방문 중 전 포드 대통령 초청으로 월드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다.
- 1998.11.20 클린턴 대통령 방한 공항 환영행사를 갖다.
- 2001.1.20 조지 부시 2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다.



미국의 역대 정상들 : 왼쪽부터 부시, 오바마, 부시2세, 클린턴, 카터 5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 모여 기념 촬영.